

# 이란

##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0. 3

I. 일반개황 .....	1
II. 경제동향 .....	2
III. 정치·사회동향 .....	11
IV. 국제신인도 .....	16
V. 종합의견 .....	18

## 이란 (Islamic Republic of Iran)

### I. 일반개황

면적	1,648천 km <sup>2</sup>	G D P	3,574억 달러 (2009년)
인구	74.2백만 명 (2009년)	1 인 당 GDP	4,817 달러 (2009년)
정치체제	회교공화국 (대통령중심제)	통화단위	Iranian Rial (IR)
대외정책	친아랍	환율 (달러당)	9,969 (2009년)

- 이란은 74.2백만명의 인구와 한반도의 7.5배에 달하는 넓은 국토, 풍부한 자원 (세계 2위의 석유 및 천연가스 매장량) 등의 성장 잠재력과 함께 반만년의 이슬람 문화와 역사를 간직한 중동의 정치·경제대국임.
- 2006년 1월, 나탄즈 핵 농축 시설 재가동으로 불거진 핵 문제를 둘러싼 미국 등 서방국가와의 마찰은 세 차례에 걸친 UN 안보리의 제재 결의안 의결 및 미국·EU의 추가 제재로 이어짐.
- 또한, 이란정부는 IAEA의 핵 연료봉 교환 중재안에 대한 수용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우라늄 추가 농축시설 건설계획을 발표하는 등 이란 핵문제에 대한 진전이 없자 서방국가를 중심으로 이란에 대한 추가제재를 추진하고 있음.
- 석유산업이 재정수입의 80%, 수출의 80~85%를 차지하며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있으며, 이란은 우리나라의 제4위의 원유도입선이며 중동지역 제2위의 수출대상국임.

## II. 경제동향

###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sup>e</sup>
경제성장률	4.7	6.6	6.7	2.3	1.5
재정수지/GDP	-3.6	-7.2	-3.6	-3.5	-5.2
소비자물가상승률	10.4	11.9	18.4	25.4	13.5

주) 이란의 회계연도는 3월 21일~3월 20일까지임. 자료: IMF 및 EIU

#### □ 수년간 양호한 경제성장세 유지, 그러나 2008년부터 둔화

- 2005~07년 이란 경제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석유수출 증대, 민간소비 증가 및 정부의 공공지출 확대 등에 힘입어 연간 4% 후반에서 6% 중반에 이르는 양호한 경제성장을 유지해왔음.
- 2008년에는 UN 안보리, 미국 및 EU의 제재 강화, 미국발 금융위기, 국제유가 하락, 비석유산업의 성장세 약화 등의 영향으로 경제성장률은 2.3%를 기록하여 성장세가 둔화되었으며, 2009년에도 세계경기 침체의 지속 등으로 경제성장률은 1.5%에 그친 것으로 추정됨.
- 그러나 2010년에는 국제유가 상승 및 세계경기 회복 등에 힘입어 경제성장률은 소폭 상승한 2% 초반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또한, 최근 중동 인근국가로 이란과 긴밀한 교역관계를 맺고 있는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사태 추이 및 핵개발 활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강화 움직임 등이 향후 이란의 경제회복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 재정수지 적자기조

- 재정수지는 정부의 공공지출 확대와 보조금 지원 등으로 인해 재정 지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만성적 적자기조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음.
- 이란의 재정수지 적자규모는 그동안 GDP 대비 평균 3.6% 수준을 유지해 왔으나, 2006년에는 정부의 보조금 지원 확대의 영향을 받아 재정수지 적자폭이 GDP 대비 7.2%까지 확대되었음.

2009년에는 국제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정부 재정수입이 감소\*하면서 GDP 대비 5.2%의 적자를 시현하였음.

\*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정부 재정수입이 전년대비 약 9% 감소하였음.

- 금년에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정부 재정수입 증대 및 보조금의 단계적 축소 계획에 힘입어 재정수지 적자폭은 GDP 대비 3% 후반대를 기록\*, 전년대비 축소될 것으로 전망됨.

\* 정부의 확대 재정정책 등에 따른 지출규모를 감안할 때 국제유가가 85달러 이상이 되어야 재정수지가 손익분기점에 도달하는 것으로 추정됨.

## □ 고 인플레이션 지속

- 이란의 소비자물가는 정부의 광범위한 보조금 지원 등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확대재정 정책, 이자율 인하\* 및 이란 리알화에 대한 약세 용인 등 느슨한 금융정책 시행에 따라 매년 두 자릿수의 상승률이 지속되어 왔음.

2008년에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유동성 확대, 부동산 및 식료품 가격 상승으로 사상 최고치인 25.4%를 기록하였음.

\*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해서는 이자율 인상 등의 금융정책이 필요하나, 금융정책 시행기관인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이란 대통령이 금융정책을 결정하고 있음. 이란 대통령은 서민층의 지지기반 유지를 위해 이자율 인상은 하지 않고 있음.

- 이란 정부는 향후에도 확장 재정정책\* 기초 유지, 단계적인 보조금 축소 계획\*\* 및 경제제재에 따른 상품가격 상승 등으로 고 인플레이션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이란 정부가 금년 1월 발표한 2010년 예산안에 따르면 총 지출금액이 3,680억 달러로 전년대비 31% 증가하였음.

\*\* 이란정부의 에너지 및 생필품 보조금 규모는 GDP의 약 30% 수준인 1,000억 달러 수준으로 보조금 축소에 따라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음.

## 2. 경제 구조 · 정책

### [구조적 취약성]

#### □ 석유 의존적 경제구조

- 이란은 석유산업이 재정수입의 80%, 수출의 80~85%를 차지하는 등 석유산업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높아, 국제유가 변동이 국가경제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음.

#### □ 성장잠재력 대비 부진한 외국인 직접투자

- 이란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이란의 경제규모, 천연자원 등 성장잠재력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

- 2008년 이란에 대한 FDI 규모는 15억 달러로 주변 산유국인 사우디의 382억 달러, UAE의 137억 달러에 비해 매우 낮음.

- 이러한 낮은 FDI는 핵문제로 인한 대 이란 경제제재, 외국투자 기업에 대한 과도한 제한조치 등 열악한 투자환경, 외국기업의 이란경제에 대한 지배 등을 우려한 각종 법률 등에 기인함.

- 이란은 특히 그동안 경제성장을 견인해 온 석유부문에 대한 FDI 유치에 절실한 상황임. 이란은 현재 4백만 배럴/일을 생산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7백만 배럴/일까지 생산량을 확대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나, FDI 유치 없이는 이러한 목표달성이 불가능한 실정임.

## [성장 잠재력]

### □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한 자원부국

- 이란은 세계 2위의 원유 매장량(1,376억 배럴, 세계 점유율 10.9%)과 세계 2위의 천연가스 매장량(1,046조 입방피트, 세계 점유율 16.0%)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 생산량을 감안할 때 원유는 향후 90년 이상, 천연가스는 100년 이상 생산을 지속할 수 있음.

석유 산업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매장량과 수출 규모가 막대하여 석유 산업이 지속적인 미래 성장산업으로 각광받고 있음.

- 최근에는 구리 (세계 점유율 4%), 철광석, 석탄, 우라늄 등 광물 자원의 생산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광물자원의 개발 잠재력도 풍부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 중앙아시아 진출의 전략적 요충지

- 이란은 한반도의 7.5배에 달하는 넓은 국토와 풍부한 천연자원, 74백만명의 인구를 보유한 중동의 정치·경제대국이며, 최근 아프리카 중서부 기니만 (Gulf of Guinea) 일대와 더불어 새로이 에너지 개발의 요충지로 관심을 받고 있는 카스피해 연안 (Caspian Depression) 중앙아시아에 인접한 전략적 요충지에 자리 잡고 있음.

## [정책성과]

### □ 산업다각화·민영화 정책 추진 부진

- 이란은 그동안 막대한 오일머니 유입을 활용하여 석유화학 부분 및 기타 제조업 육성 등 산업기반의 다각화를 추진하고자 노력해 왔으나, 핵 개발을 둘러싼 서방과의 마찰과 지속되는 경제제재로 인해 효과적인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민영화 추진 또한 지지부진함. 정부는 그동안 매년 국영기업의 20%를 민영화하겠다는 정책을 펼쳐왔으나, 가시적인 성과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음.

### □ 무리한 보조금 정책 추진

- 현 아흐마디네자드 대통령은 정부에 대한 지지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 주요 생필품에 대해 1,000억 달러 (GDP의 약 30%\*) 수준의 막대한 국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인위적으로 국가 통제 경제를 유지하고 있음.

\* 이란 정부의 보조금 중 식료품에 대한 보조금이 GDP의 5%, 에너지(휘발류, 전력 등)에 대한 보조금이 GDP의 25%를 차지하고 있음.

- 그러나, 금년 4월부터 보조금 제도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축소 되어 폐지될 예정임. 석유제품에 대한 보조금은 2015년까지 단계적인 축소가 계획되어 있으며, 전력 및 천연가스에 대한 가격도 생산원가 수준까지 인상될 예정임.

### □ 휘발류 보급 할당제 (Rationing) 실시

- 이란은 세계 2위의 원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고 세계 5위의 원유 수출국임에도 불구하고 원유 정제시설의 부족으로 인해 휘발류 수입국\*임.

\* 이란은 휘발류 소비량의 40%를 수입하고 있으며, 수입은 주로 UAE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 또한, 이란은 도로운송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휘발류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급으로 휘발류에 대한 수요가 매우 큰 편임.
  - 이란정부는 휘발류 소비 감소를 위해 2007년 5월 휘발류 가격을 리터당 2센트 인상하여 리터당 11센트로 상향조정 하였으나,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함.
  - 이에 이란 정부는 2007년 6월 휘발류에 대한 보급 할당제\*를 도입 하였으며, 동 제도 시행후 휘발류 수입이 절반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 할당량을 초과하는 휘발류에 대해서는 보조금 가격보다 4배나 비싼 리터당 42센트에 판매하며, 2009년에는 휘발류 할당량을 차량당 120리터/월에서 75리터/월로 대폭 축소하였음.

#### □ 부가가치세 (VAT) 도입 재개 발표

- 이란 정부는 조세제도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조세수입 증대를 통해 석유산업에 대한 경제의존도를 낮추고자 부가가치세 도입을 추진하여 왔음.
- 이란정부는 2008년 9월 3% 세율을 부과하는 VAT 제도 시행을 발표 하였으나, 상인조합의 상점 폐쇄 등 강한 반대에 부딪혀 2008년 10월 부가가치세 시행 유보를 결정하였고, 이후 이란정부는 2009년 9월 VAT 제도 시행 재개를 결정하였음.
-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부가가치세 도입이 고인플레이션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 납부관행의 정립, 인력훈련 및 세부 규정마련이 필수적이므로 VAT 제도 시행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 □ 제5차 (2010-2015) 경제사회개발계획 수립

- 금년 1월 이란 정부는 제5차 (2010-2015) 경제사회개발계획을 발표하였음.
- 동 계획은 연평균 8%의 경제성장률 달성, 실업해소 (실업률 7%로 감소), 재정 및 금융정책 개혁, 외국인투자 및 무역 확대, 재정수입의 원유에 대한 의존도 감소 등의 목표를 담고 있음.
- 그러나, 핵개발로 인한 UN 등 국제사회의 제재조치 및 외국인투자 부족 등으로 경제사회개발계획에서 수립한 목표달성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 3. 대외거래

<표 2>

###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억 달러,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sup>e</sup>
경 상 수 지	166	204	341	240	29
경상수지 / GDP	8.8	9.2	11.9	7.1	0.8
상 품 수 지	213	261	408	321	135
수 출	644	761	974	1,006	706
수 입	431	500	566	685	572
외 환 보 유 액	455	585	821	966	813
총 외 채 잔 액	213	201	206	213	190
총외채잔액 / GDP	11.2	9.0	7.2	6.3	5.3
D S R	3.7	3.1	3.2	2.5	2.8

자료: IMF 및 EIU

## □ 경상수지 흑자기조 유지, 그러나 2009년 흑자규모 대폭 축소

- 상품수지는 유가상승에 따른 석유수출 증가에 힘입어 매년 꾸준히 흑자를 시현하여 왔으나, 2009년에는 국제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흑자폭이 축소된 것으로 추정됨.
- 경상수지도 상품수지 흑자에 따라 흑자기조를 유지하여 왔으나, 2009년에는 국제유가 하락과 세계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상품수지 및 소득수지가 큰 폭으로 축소되면서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총 GDP의 0.8%인 29억 달러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
- 그러나 2010년에는 국제유가 상승 및 원유생산량 증가 등에 힘입어 상품수지 및 경상수지는 각각 236억 달러, 134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여 흑자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소득수지 : 49억 달러(2007) → 19억 달러(2008) → 3억 달러(2009)
  - 서비스수지 : -112억 달러(2007) → -139억 달러(2008) → -116억 달러(2009)
  - 경상이전수지 : 6억 달러(2007) → 8억 달러(2008) → 8억 달러(2009)

## □ 서방국가들의 경제제재로 중국 등 아시아 국가와 교역 확대

- 이란과 중국간 교역은 2002년 31억 달러에 불과하였으나, 최근 양국간 교역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중국이 이란의 최대 교역대상국으로 부상하였음.
  - 2008년 기준 이란의 대 중국 수출액은 178억 달러로 총 수출의 15.3%를 차지하여 이란의 최대 수출대상국이며, 이란의 대 중국 수입액은 89억 달러로 총 수입의 12.8%를 차지하여 UAE에 이어 이란의 제2위 수입대상국임.
- 또한, 이란은 중국, 일본, 한국 등 동북아 3개국과의 교역을 더욱 확대하면서 이들 3개국 앞 수출이 전체 수출의 36%를 차지하고 있음.

- 이처럼 중국, 한국 등 아시아 국가 및 브라질 등 라틴아메리카 국가와의 교역은 증가한 반면,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국가와의 교역비중은 상대적으로 축소되었음.

<표 3> 이란의 10대 수출·수입대상국 현황 (2008년)

단위: 백만 달러, %

이란의 10대 수출대상국				이란의 10대 수입대상국			
순위	국가	금액	비중	순위	국가	금액	비중
1	중국	17,801	15.3	1	UAE	13,199	19.0
2	일본	16,587	14.2	2	중국	8,852	12.8
3	한국	7,476	6.4	3	독일	6,298	9.1
4	터키	7,454	6.4	4	한국	4,777	6.9
5	이탈리아	5,269	4.5	5	러시아	3,668	5.3
6	스페인	4,069	3.5	6	이탈리아	3,506	5.1
7	네덜란드	3,646	3.1	7	프랑스	2,903	4.2
8	남아공	3,394	2.9	8	터키	2,233	3.2
9	프랑스	3,167	2.7	9	인도	1,880	2.7
10	싱가포르	1,450	1.2	10	브라질	1,247	1.8

자료 : IMF

[외채상환능력]

□ 비교적 풍부한 외환보유액 및 외채상환능력 양호

- 이란은 원유수출 증대에 따른 경상수지 증가 등에 힘입어 800억 달러 수준의 비교적 풍부한 외환보유액을 보유하고 있음.
  - 총 외채규모는 최근 수년간 200억 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GDP의 지속적인 증대로 GDP 대비 외채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DSR도 4% 미만의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GDP : 2,861억 달러(2007) → 3,374억 달러(2008) → 3,574억 달러(2009)

### Ⅲ. 정치 · 사회동향

#### 1. 정치 및 국제관계

##### [정치 안정]

##### □ 2008년 3월 제8대 총선에서 보수파 압승

- 2008년 3월 치러진 제8대 총선 결과, 현 아흐마디네자드 정부의 보수파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음.
- 동 총선은 강경 보수파인 아마디네자드 대통령의 4년 임기 중 2년 반이 경과한 시점에서 치러진 만큼, 이란의 핵 프로그램 정책, 고인플레이 등 경제문제를 비롯한 현 정권에 대한 국민의 중간평가의 의미를 지녔으나, 불공정 총선으로 인해 보수파가 압도적인 의석을 확보\*하였음.

\* 보수파 170석, 개혁파 46석

##### □ 아흐마디네자드 대통령 재선에 성공, 그러나 정국혼란 지속

- 현 아흐마디네자드 대통령은 2005년 6월 대통령 선거에서 국내외 정치분석가들의 예상을 뒤엎고 저소득층의 전폭적인 지지로 당선 되어 2005년 8월에 취임하였으며, 대내외적으로 이슬람 중심의 강경 보수주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2009년 6월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는 개혁파 무사비 (Mousavi) 후보를 물리치고 재선에 성공하였음. 그러나, 대통령 선거후 부정 선거 의혹에 따른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발생하였으며, 현 정부의 강경보수정책에 따른 보혁 갈등으로 정국혼란이 지속되고 있음.

### 이란의 정치체제

- 이란의 정치체제는 최고지도자 (Supreme Leader) 중심체제로서, 통치권을 행사하는 최고지도자 아래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3권 분립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국가지도자운영회의, 국정조정회의, 헌법수호위원회, 혁명수비대 등의 헌법수호기관이 있음.
- 최고지도자는 국가 최고 통치권자로서 최고통수권, 군사령관 임명권, 대통령 인준 해임 (대통령 해임권은 국회가 재적 2/3 찬성으로 대통령 불신임시 행사) 및 국정조정회의 의장, 사법수장, 헌법수호위원회 위원 임명권 등을 행사함.  
  
최고지도자의 임기는 종신직으로 사망 또는 직무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국가지도자운영회의에서 후임자를 선출함. 현 최고지도자인 하메네이 (Khamenei)는 제2대 최고지도자로서, 초대 최고지도자인 호메이니 (Khomeini) 사망후 1989년 6월 취임하였음.
-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직접/보통선거로 선출되며, 임기는 4년이고, 3회 이상 연임이 불가능(2회 연임후 쉬었다가 재차 출마 가능)함. 대통령은 부통령 (10명), 장관(21명)으로 구성된 내각을 관장하고 있음.
- 국회는 직접/보통선거로 선출된 290명 의원으로 구성(임기 4년, 단원제)되며, 현 국회는 제8대 국회(2008. 3월 선거, 2008. 6월 개원)임.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은 헌법수호위원회(일종의 상원 역할 수행)의 비준과 대통령 서명으로 확정되며, 입법과정에서 국회와 헌법수호위원회간 의견이 대립될 경우, 국정조정위원회의 중재 및 최종 결정으로 확정됨.

### [국제관계 - 핵 문제 동향 및 전망]

#### □ UN 안보리 및 미국·EU의 제재 지속

-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관련, UN 안보리는 3차례에 걸쳐 제재 결의안 (2006.12.23, 2007.3.24, 2008.3.3)을 채택하였고, 미국 및 EU 일부 국가에서는 이와 별도로 자체적인 각종 경제·금융제재를 취하고 있음.

<표 4> UN의 대 이란 제재내용 및 경과

일 자	주요 내용
· '06.01.10	이란, 핵 활동 재개 결정
· '06.03.29	UN 안보리, 이란 핵문제 관련 의장 성명 채택
· '06.04.11	이란, 핵 기술 보유국 공식 발표
· '06.07.31	UN 안보리, 이란 핵문제 결의안 채택 · 8.31까지 핵 농축 관련 모든 활동 중단 촉구 및 결의안 이행 거부 시, UN 헌장 제7조 41항에 의거 제재조치
· '06.12.23	UN 안보리, 1차 대 이란 핵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1737호) · 이란의 핵 활동 즉각 중단 재 요구, 11개 단체와 12명의 금융자산 동결 · 모든 UN 회원국의 핵, 미사일 관련 품목, 물질, 기술의 이란 판매 및 이전 금지
· '07.03.24	UN 안보리, 2차 대 이란 제재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1747호) · 1차 제재안 대비 자금, 금융자산, 경제적 자원 동결 대상 추가 지정 (Bank Sepah 등 10개 기관 및 동 은행장 등 18인) · 모든 국가 및 금융기관은 이란 정부에 대해 인도적 및 개발지원 목적을 제외한 무상원조, 금융지원, 양허성 차관의 신규 약정 금지 · 이란과의 군사물자 수출입 거래, 관련 기술 및 재정지원 금지
· '08.03.03	UN 안보리, 3차 對 이란 제재 결의안 채택 (1803호) · 1~2차 제재안의 연장선상으로 여행금지 및 제한, 자산동결 대상 추가 지정 · 핵 관련 이중용도 품목 및 무인 자동항공수단 관련 품목의 공급, 판매 또는 이전 금지 · 수출신용 및 이란은행(특히 Bank Melli, Bank Saderat)과의 거래 시 주의 촉구 등 제재수위 강화

□ 국제사회의 추가 제재 움직임 구체화

- 이란 정부는 2009년 IAEA의 핵 연료봉 교환 중재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표명하지 않고 있으며, 최근 우라늄 농축을 위한 추가시설 건설계획을 발표하였음.

- 이처럼 대화 및 협상을 통한 이란 핵문제 해결에 진전이 없고 이란의 핵 개발 의도(군사적 목적을 위한 핵 개발)에 대한 우려가 고조됨에 따라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서방국가들을 중심으로 대 이란 추가제재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음.
  - 현재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이 안보리 제재 초안에 합의하고 러시아 및 중국 등에도 그 내용을 송부해 놓은 상태임.
  - 결의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이란 정부의 주요 수입원인 석유관련 산업에 대한 조치, 이란 금융시스템 관련조치, 해운 및 운송부문 제재, 혁명수비대에 대한 조치 등을 중심으로 검토되고 있음.
- 그러나,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 및 중국이 추가제재에 대해 미온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 브라질 등 비상임이사국도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UN 안보리 차원의 제재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도 있음.

#### □ 최근 미국의 이란에 대한 추가제재 동향

- UN 차원의 추가제재와는 별도로 최근 미국에서는 이란에 대한 추가제재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으며, 대 이란 제재적용법안(Iran Sanction Enabling Act)과 이란 정유 제재법안(Iran Refined Petroleum Sanction Act)이 추진되고 있음.
  - 대 이란 제재 적용법안은 2009년 10월 미하원에서 승인된 법안으로 이란 에너지 분야에 20백만 달러 이상 투자한 기업에 대한 미국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투자철회 및 신규투자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음.
  - 이란 정유 제재법안은 2009년 12월 하원에서, 2010년 1월 상원에서 각각 승인된 법안으로 1996년 대 이란 제재법안(Iran Sanctions Act, ISA)을 수정하여 대 이란 경제제재를 확대함으로써 이란 핵문제와 관련하여 미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외교적 목표를 달성코자 함.

동 범안은 대 이란 원유 정제시설의 확대, 건설 및 보수유지와 정유관련 상품, 서비스, 기술, 정보의 판매·임대·제공 및 지원하는 해당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미국내 자산 동결, 미국인 및 미국기업과의 거래금지 등의 제재를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 오바마 정권 출범으로 미국과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은 낮아짐

- 2008년 UN 안보리의 제3차 제재 결의, 미국의 대 이란 금융제재 조치 강화, 부시 전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으로 인해 양국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고조되어 왔음.
- 그러나, 2009년 1월 출범한 오바마 정권은 외교적인 개입과 협상을 통한 핵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어, 미국과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은 낮아짐.

## 2. 사회 및 소요사태

#### □ 높은 실업률 지속

- 공식적인 실업률은 최근 수년간 12%대를 지속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실업률은 약 20~25%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실업문제가 사회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특히, 회교혁명 이후 베이비붐으로 인해 30세 미만의 인구가 총 인구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어, 청년 실업률이 매우 심각한 실정임. 매년 800천명 이상이 노동시장에 쏟아져 나오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또한, 이란의 젊은 우수인력이 고용조건이 유리한 유럽 및 미주 지역으로 유출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매년 200천명 이상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이란 정부가 경제사회개발계획을 통해 실업률을 현 12%에서 7% 수준까지 개선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하였으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IV. 국제신인도

### 1. 주요 기관별 신용도 평가순위

- OECD : 6등급 (2007. 10) → 6등급 (2009. 4)
  - ICRG : 72/140 (2009. 1) → 98/140 (2010. 1)
  - I.I : 97/177 (2009. 3) → 101/178 (2009. 9)
  - Euromoney : 162/186 (2009. 9) → 137/186 (2010. 3)
- 2007년 6월 OECD는 UN 및 미국의 경제제재 지속 및 강화 전망, 석유부문 투자 부진, ECA 여신에 대한 연체 발생 (기술적 연체) 등을 근거로 이란의 국가신용등급을 5등급에서 6등급으로 한 단계 하향 조정하였음.

### 2. 주요 ECA의 지원태도

- 미국 EXIM : 미국법에 의해 인수 금지
- 영국 ECGD : 중·단기 인수 개별심사
- 독일 Hermes : 단기인수 가능하나 제약조건이 있을 수 있음

### 3. 외채상환태도

#### □ 외채상환능력 비교적 양호, 단 추가제재가 변수

- 이란은 최근 수년간 200억 달러 수준의 외채를 유지하고 있음.
- 이란의 외환보유액이 비교적 풍부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를 시현할 것으로 예상되며, DSR도 4% 미만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외채상환능력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이란 핵개발 활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추가제재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어 이러한 제재조치 강화가 대외지급능력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4. 우리나라와의 관계

<표 4>

#### 한 · 이란 교역규모

단위: 백만 달러

	2007	2008	2009	주요 품목
수 출	3,266	4,343	3,992	수송기계, 철강제품, 석유화학제품 광물성연료, 석유·정밀화학제품
수 입	6,482	8,223	5,746	
합 계	9,748	12,566	9,738	-

자료: KOTIS, 한국무역통계

- 국교수립 : 1962년 10월 23일 (북한과는 1973년 4월 19일 수교)
- 주요협정 : 문화협정(1974), 경제기술협력협정(1975), 무역협정(1976), 수산협력관련협정(1978), 항공협정(1998), 투자보장협정(1998)
- 우리나라와의 2009년 교역규모는 97억 달러에 달함.
  - 주요 수출품은 수송기계, 철강제품, 석유화학제품을 중심으로 약 40억 달러, 수입은 광물성연료, 석유 및 정밀화학제품을 중심으로 약 57억 달러를 기록함.
- 해외직접투자 (2009년 12월말 누계, 총투자 기준) : 42건 52,745천 달러

## V. 종합의견

- 이란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고유가의 영향으로 대외거래 등 경제 전반에 걸쳐 비교적 양호한 모습을 보여 왔음.

그러나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강화와 그에 따른 시설투자 부진,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경제성장세가 둔화되었으며, 향후에도 단시간 내 경제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세 차례에 걸친 UN 안보리의 제재와 미국 및 EU의 잇따른 경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이란 정부는 핵 활동 지속 의사를 강력히 천명하고 있음.

최근에는 미국 등 서방국가들을 중심으로 추가제재가 추진되고 있어, 핵문제를 둘러싼 이란과 국제사회와 마찰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상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동국의 신용등급을 C3로 유지하고자 하며, 핵문제 해결 과정 및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움직임 등을 예의 주시하여 향후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위험요소 증감 시 수시평가를 통해 신용등급을 재조정코자 함.